아기자기한 섬 이야기

1. 목적 및 배경

○ 바다에 위치한 우리 지역 국립공원에 대해 알고 국립공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 보전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본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자연환경 · 경관 해설

○ 프로그램명 : 아기자기한 섬 이야기

○ 대　　상 : 청소년 및 일반인

○ 운영기간 : 3~ 11월까지 신청시 운영

○ 운영형태 : 신청시 운영 30분내외 / 회

○ 장　　소 : 초량탐방지원센터 인근

○ 주요내용 : 국립공원 소개, 한려해상의 섬 이야기

○ 소요예산 :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국립공원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모집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이메일, 전화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홍보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5. 첨부

○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단위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경관해설

아기자기한 섬 이야기

활동장소	초양탐방지원센터 인근
소요시간	40분 내외
참가대상	청소년 및 일반인
참가인원	10명 내외 / 회당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박재영

활동목표	•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본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주변의 지역과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준비물	• 영상자료 및 기타 사진자료
유의사항	• 도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차량에 유의 •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주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인사 – 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소개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주요 해설)	• **창선·삼천포대교의 관한 설명** – 각자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 – 삼천포 화력 발전소 • **주변의 섬 이야기** – 무인도 학섬, 솔섬, 장구섬, 코섬, 아두섬 – 유인도 신수도, 신도, 마도, 저도 • **남해안의 바다에만 있는 고기잡이 시설** – 죽방렴이란 •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22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자연보전' 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주변정리**	3분

시나리오	**인사 및 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소개**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에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보통 넓은 바다를 보기 위해 오시는 곳이죠? 어떠세요? 무엇인가 마음이 설레이고 뻥 뚫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자 지금부터 국립공원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곳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처음으로 지정하였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네 번째 국립공원(해상공원으로 첫 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관리 하는 곳입니다. 혹시 한려해상이란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들어 보신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통영시의 한산도와 여수 오동도 두 지명의 앞 글자를 합하여 '한려'라고 이름 붙여진 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한산도에서 여수 오동도까지 300리 아름다운 뱃길과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주·금산지구, 남해대교지구, 사천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영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통영·한산지구 거제·해금강지구를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여수 오동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움직이시고 이곳은 바닷가로 절벽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 들어 보신적이 있나요? 삼천포와 사천으로 행정구역이 분리 되어 있다가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이 되어 사천시로 되어졌습니다. TV에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 중에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죠? 해설이 끝날 때 그 유래에 가장 근접하신 분께는 제가 작은 기념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설에 집중을 해주시면 힌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경관의 가장 먼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삼천포와 사천의 다리 이름 우야낀데?** 여러분들 건너온 다리 이름이 여러개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이 다리는 3개의 섬(모개섬·초양도·늑도)과 5개(삼천포대교·초량대교·늑도대교·단항교·창선대교)의 다리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으로 창선·삼천포

대교라고 주로 불리며 건설교통부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 시작하여 2003년에 완공되어졌으며 총 3.4km 구간에 이릅니다. 밤이면 아름답게 빛나는 조명들로 바다에 반사되어 도시의 불빛과 어울려 다양한 야경을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전국 9대 일몰지의 하나로써 해안에서 보는 바다와 섬을 건너 남해 서산에 지는 저녁노을이 일품인 사천 실안 낙조는 부채꼴 참나무 말뚝으로 만든 죽방렴과 섬, 바다 그리고 일몰과 함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곳에는 다 이름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데 왜 여기는 각자 다리마다 이름이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릴 적 언론에서 접했던 기억으로는 구역상 남해와 삼천포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각자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역느낌을 지우는게 어떻겠냐?' 해서 현재의 섬의 이름으로 다리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늑도와 창선대교)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에 떠있는 섬 이야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멀리 굴뚝이 보이고 연기가 나는 곳이 있는데요? 혹시 저곳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입니다. 저곳의 행정구역은 고성군 하이면인데 그리고 이제는 사천시인데 이름은 그대로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불립니다. 석탄을 연료로 하여 2020년 5월부터 1.2호기가 중단이 된 상태고요 환경영향적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의 섬은 사천지구에서 제일 큰 섬인 신수도입니다.
주변의 섬과 크고 작은 산봉오리가 모두 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 신두섬으로 불리기도 하고 삼천포의 진산 와룡산 용머리가 물속에서 솟아올라 '신두섬', 주변의 수심이 깊어 심수도로 불리다가 '신수도'로 변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천지구에서 가장 큰 섬으로 200여 가구에 3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신수도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인 정기 도선이 하루에 6번 운행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웨이 힐링고도라는 이름이 붙은 둘레길은 총 5.4km 구간으로 해안을 따라 천천히 걸어서 3시간이면 섬 전체를 둘러볼수 있습

니다. 북쪽 해안길로 접어들면 하루에 두 번 바닷길로 연결되는 섬, 추도가 있으니 힐링이 필요하다면 신수도로 여항을 한번 떠나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신수도)

그 앞으로 섬이 3개 있는데 제일 왼쪽에 보이는 섬은 씨앗섬이라고 불리며 이곳은 2017년부터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 작은 섬들을 보호하고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장구섬과 아두섬, 소치도, 세존도 등의 무인도 5곳의 보호구역은 2035년까지 탐방객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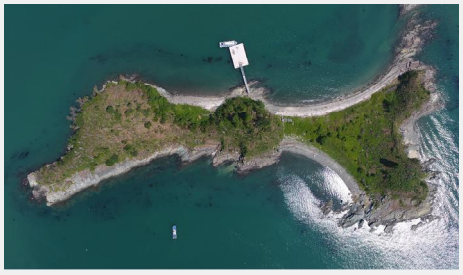
씨앗섬의 오른편에 있는 섬은 장구섬으로 섬의 모양이 장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같지만 한자를 풀이해보면 길 장(長)에 입 구(口)라 해서 섬의 모양이 긴 입처럼 생겼다하여 장구섬이라고 합니다. 섬 가운데 잘록하게 형성된 부분에는 순비기나무, 변행초, 해홍나물, 갯방풍 등 해안식물이 군락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씨앗섬)

그 옆으로 아두섬이 있습니다.

거위 머리처럼 생겼다하여 거위 아(鵝)를 써서 아두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타 모양처럼 생겼다하여 기타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위성지도를 보면 거위의 부리처럼 보여 거위 아를 사용해서 아두섬이라고 불려지는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네요~



(아두섬)

아두섬은 약 2억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어 천연기념물 제 474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룡알 둥지 및 용각류, 수각류와 같은 공룡 보행렬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섬전체가 공룡의 서식근거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화순, 보성과 비교될 정도로 공룡알 화석들이 둥지를 이루고 있고 공룡뼈 화석은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서 고생태학적 연구가치가 높고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아쉽게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룡발자국 화석)

혹시 아두섬 주변에 작은 여러 바위섬이 보이시나요? '여'라는 것인데요 혹시 '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는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물이 빠지면 보이는 바위섬을 말합니다. 배 운항 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저런 여를 피해 무사히 항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등대가 있답니다.



('여'에 좌초된 선박모습)

저 섬 한번 보세요 생긴 모양이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누워 코만 내밀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코섬이라고 불립니다. 파도의 침식 때문에 앞쪽이 쓸려나가 사람의 코처럼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섬에는 '해식애'와 '파식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본 코섬)



(노을질 때의 코섬)





(해식애와 파식대)

코섬 뒤편으로 보이는 둥근원을 반으로 잘라 놓은 듯한 섬이 보이죠 저 섬은 솔섬이라는 섬입니다. 섬 전체가 소나무(해송)로 덮여 있어 솔섬이라 부릅니다. 이 섬도 다음에 설명드릴 학섬과 같이 해식해와 파식대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환경부에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섬입니다.



(솔섬)

그리고 보고 계시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섬은 학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학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양이 물위에 뜬 물고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부여도 하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지금은 학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소나무와 후박나무군락이 있고 해식애와 파식대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환경부에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 초양도 아래 – 학섬)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이 섬은 초양도라는 섬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저기 뒤편으로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군마의 풀을 길렀다하여 초양도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늑도나 초양도는 다리가 놓아지면서 섬으로서의 매력이 줄기는 했지만 남해를 가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거쳐 갑니다. 예전에는 유채꽃밭이 앞쪽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쿠아리움 건설중으로 예전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섬은 늑도라는 곳입니다. 사천지구에서 2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섬으로 94가구에 240명 정도가 어

업과 상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늑도를 구라도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멀리서 보면 그 모양이 마치 말의 굴레(勒 : 굴레 늑)와 같다하여 붙여졌습니다. 이후 굴레를 뜻하는 한자 '늑'자를 따서 현재까지도 늑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늑도)

이곳은 청동기시대 패총, 무덤, 주거지, 각종 토기류(중국계 경질토기, 일본계 야요이토기) 등이 발견되었고, 한나라시대 화폐 반량전, 거울 등이 출토되면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높아 사적 제 450호로 지정되어 섬 전체가 문화유적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자들이 2000년 전에는 아마도 고대국제 무역항이 아닐까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건너 뒤편으로 이동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맞은편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실안 낙조는 그 어떤 장면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멋집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감상 해보는 것도 한려해상을 여행하는 중요 포인트일 것입니다.



(실안 낙조와 죽방렴)

여러분들 바로 앞에 보이는 섬은 신도라는 섬입니다. 섬의 형태가 무명조개처럼 생겼다 해서 한자 무명조개 신(蜃)자를 따서 신도라 합니다.



(신도)

예부터 박식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섬인데, 삼천포 초등학교 신도분교는 안타깝게 단 1명의 학생만 남아 있다가 2013년에 폐교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신도는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된 귀여운 수달들의 서식

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죽방렴의 그물을 찢거나 어장안의 고기를 약탈(?) 하는 수달에 그리 달가운 동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 신도보다 조금 큰 섬인 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의 형상이 새 모양을 하고 있어서 '새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수록된 '전어의 고장'답게 이곳에서 잡히는 가을전어 역시 빼어난 맛을 자랑합니다.


(마도)

마도에서는 예로부터 전어잡이를 위해 불려지던 노동요인 마도갈방아소리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전승이 어려운 어업 노동요가 온전히 계승되어서 귀장한 문화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생활양상을 재현하여 협동화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통문화의 현재적인 전승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독특한 유래와 전통 때문에 2004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갈방아란 갈을 찧는 방아라는 뜻이고 갈은 면사 그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 그물에 막을 입히는 재료를 뜻한다. 마도 어부들이 전어잡이용 면사 그물에 갈을 먹이기 위해 작업할 때 부르던 여러 소리들을 갈방아소리라고 한다. 그리고 소나무 껍질을 절구에 빻아 삶은 물에 그물을 넣어 염색을 했다고 한다.


(그물에 먹을 입히고 있는 장면)


(마도갈방아소리 재현 모습)

자 이제 마지막 섬이 되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섬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종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섬은 한지를 만들던 닥나무가 많아서 '닥섬' 이라고도 하며 (닥나무 저 楮)를 써서 저도라고도 부릅니다. 삼천포 실안선착장에서 뱃길로 3분거리에 있으며 육지와 가까워서 주말이면 많은 낚시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착장 주변에서 죽방렴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아이들과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자 여기서 하나 남해안에만 있는 전통 어로잡이 방식의 설치구조물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죽방렴입니다. 죽방렴은 남해안에서만 볼 수 있고 사천, 남해 지족에 약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죽방렴을 '대나무 어사리' 라고도 하는데 어사리는 그물을 쳐서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해안의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살이 빠르며 수심이 얇은 곳에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대나무 말뚝을 V자 형태로 촘촘히 박아 물고기들이 통발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업법으로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원시어업방법입니다.
다양한 어종이 잡히지만 특히 죽방렴에서 잡은 멸치는 남해를 대표하는 상품이며 우리나라 멸치 중 가장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멸치의 상품이 좋기도 하겠지만 8번을 삶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니 그 노력의 비례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험을 원하시면 남해 방향으로 20분 정도 이동하면 남해군 지족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 죽방렴 체험장도 있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체험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현장교육이 될 것입니다.



(삼천포 연륙교와 죽방렴)



(죽방렴 체험)

자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의 답을 말하실 뿐 계신가요?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고성에 사는 처자가 시집을 가지 위해 가마를 타고 진주로 가야하는데 양 갈래 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삼천포로

빠졌다고 하여 생긴말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나온길이 예전에는 기찻길이였습니다. 부산에서 진주~삼천포 간 운행되던 기차에서 진주에서 내리지 못해 삼천포까지 왔다하여 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니 비슷하게 맞춘것 같아서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어디를 여행을 갈 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제 얘기를 듣고 다음번에 이곳을 지나갈 때는 아 여기는 이런 곳이였지하고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무척이나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서 보호의 가치가 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유의하시여 이곳을 방문할 때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꽃을 꺾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곳의 경관은 앞으로도 계속 보전되어 자라라는 미래세대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으로 차가 다소 밀리더라도 짜증보다는 양보하는 서로를 위한 배려를 하시면 보다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